LEADING
Weekly
Market Insight

2013년 9월 2일

중국 제조업 PMI 지수 호조로 투자심리 개선

시리아 공습 우려, 이태리 정국 불안 등으로 글로벌 증시 약세

- **시리아 공격 지연되며 미국, 중국 경제지표에 대한 관심 증가**

지난 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및 시리아 공습 우려로 전반적인 약세 국면이 이어진 가운데 이태리 정국 불안으로 남유럽 국가들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되었으며, 사용 주체가 시리아 정부군으로 확인되었다는 케리 미 국무 장관의 발표로 미국, 영국, 프랑스의 시리아에 대한 공습이 빠르면 주말에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며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되기도 했다.

영국의회 동의안 부결, 미국 의회 9/9 표결 예정으로 시리아 공습 지연 전망

하지만, 주말로 접어들면서 영국 의회에서 시리아 공격 관련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독자 행동에 부담을 느낀 오바마 대통령도 9/9 개회되는 의회에 동의를 거쳐 공습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시리아 공습 관련 우려는 단기적으로 수면 아래로 잠복하게 되었다. 미국도 아프간 전쟁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외 여론도 전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상황에서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단행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단기간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반기 중 그림자 금융 및 경착륙 우려로 약세를 보였던 중국 증시가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상해 자유무역지대 시범 운영 계획 발표로 강세를 보인 한편, 상반기 뱅가드 포트폴리오 교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소외를 받았던 한국 증시가 이머징 국가 금융위기 우려가 대두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 건전성과 함께 주식시장의 저평가 메릿이 부각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강한 순매수로 강세를 보여 이머징 국가의 하락폭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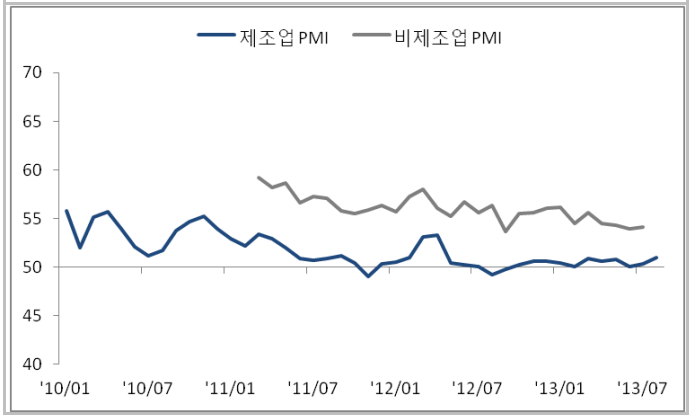
전주말 중국 제조업 PMI, 한국 수출 호조로 투자심리 개선 전망

또한, 주말 발표된 중국 8 월 제조업 PMI 가 51 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강세를 보인 점과 한국의 8 월 수출도 미국, 아세안, 중국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여 7.7%의 증가세를 기록한 부분도 투자심리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9/5~6 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도 이머징 국가 금융위기 관련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 관련 당사국의 금리 인상, 외환 시장 개입 등 적극적 정책 대응과 함께 이머징 마켓 금융위기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고용 지표, 중국 HSBC PMI 등 경제지표 관심 고조

한편, 9 월 중순 예정된 FOMC 가 다가오면서 9/6 예정된 8 월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중국 HSBC 제조, 비제조업 PMI 및 통계국 발표 비제조업 PMI 등 경제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hibit 1 중국 제조업/비제조업 PMI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 아시아 주요국 외국인 누적 순매수

($ mn)	주간	월간	연초누적
한국	1,142.0	1,948.2	-5,234.9
일본	-906.6	-2,386.5	94,904.2
인도	-438.1	-931.5	11,423.8
인도네시아	-99.6	-521.1	-829.3
필리핀	-262.1	-425.3	1,199.9
대만	439.2	-1,522.4	1,368.7
태국	-161.5	-1,260.0	-3,766.5
베트남	-17.5	-37.3	128.9

Source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일본 외국인 누적 순매수는 1 주 순연 발표치

지역별주식시장전망

- **미국**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시리아에 대한 공습이 단기적으로 탄력을 잃은 상황에서 경제 지표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주 발표된 2 분기 GDP 수정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된 반면 7, 8 월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한 양상이 진행되고 있어 9 월 양적 완화 축소를 뒷받침해줄 경제 지표들의 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 발표될 지표가 QE 축소의 시기, 규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번 주 발표될 주요 지표로는 9/3 8 월 ISM 제조업 지수, 9/6 8 월 월간 고용지표가 있다. 제조업 지표는 전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어 회복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을 시사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고용 지표는 전월에 비해서 개선된 시그널을 보이며 양적 완화 축소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실업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컨센서스는 전월과 같은 수준인 7.4%로 예상하고 있다. 또 9/4 일 예정된 9 월 베이지북 발표에서 방향성이 다소 엇갈리는 경제지표들에 대한 연준의 평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주 증시는 월요일 노동절 휴장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에 대해 9/9 개회되는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적완화 축소 관련 경제지표 동향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식시장은 움직일 것으로 전망한다.

- **유럽**

유럽 증시는 시리아 사태에 대한 불안감과 이탈리아 정국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재정 위기국 중심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이번 주에는 유럽지역도 경제적 이슈보다는 정치적 이슈에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9월5일에는 ECB 9 월 통화정책회의와 영국의 BOE 통화정책회의도 있을 예정이다. ECB 기준금리는 전월과 마찬가지로 0.5%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 지표로는 9월 2일 발표될 유로존 8월 제조업 PMI 확정치와 4일 유로존 2분기 GDP 잠정치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이전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독일의 주요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주 후반에 발표되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지표인 독일의 7월 산업생산과 무역수지는 모두 직전치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시아**

중국 제조업 경기가 전월에 이어 강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주말에 발표된 8 월 제조업 PMI 는 51 로 예상치와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여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6 월말 이래 발표된 정부의 미니부양책, 유동성 개선 및 기업들의 생산력 증가와 이로 인한 수출 증가가 제조업 경기 회복세로 이어졌다. 상하이에 이은 탠진, 충칭 자유무역 시범구역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의 강세가 지난주에 이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주에는 제조업 지표 호조로 인한 중국 경제성장 모멘텀이 강화되어 상승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

금주 한국증시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 관련 첫 번째 시험대인 9 월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의 관망심리는 짙어질 것으로 판단되나, 하락 리스크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인정받는 가운데 주식시장은 여전히 신흥시장으로 분류되는 다소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면서, 연초 이후 선진 주식시장의 상대적 강세와 신흥국 경제 및 증시 부진에 맞물려 한국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도는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8 월 이후 선진증시의 조정 흐름과 양적 완화 축소 우려로 신흥국들의 취약한 재정건전성이 부각되면서 한국경제의 높은 재정건전성과 낮은 밸류에이션이 부각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과 시리아 사태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제의 회복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시장의 선호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1. 미주

➢ 경제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정치가 2.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 1.7%와 시장의 전망치 2.2%를 모두 웃도는 수준으로 시장에서는 연방 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에 따른 긴축 정책에도 미국 경제가 확연히 살아나고 있다고 풀이됐다. 하지만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의 회복세가 주춤해 2분기 이후 미국 경기는 회복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다. 지난 주 발표된 지표를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제조업 관련 지표인 또 7 월 내구재 주문이 전달보다 7.3% 감소해 11 개월 만에 가장 부진했고, 7월 미결 주택매매 지수가 전달보다 1.3% 하락하며 보합을 예상했던 시장 기대를 하회했다. 이와 같이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 우려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주택시장 중심으로 회복세가 더뎌지고 있다. 또 7월 개인 소득이 전월보다 0.1% 증가에 그치며 전월치와 예상치를 하회했다. 반면 고용 지표는 긍정적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6,000건 줄어든 33만1,000건으로 집계되며 감소했다. 한편 8월 미시간대 소비심리는 82.1을 기록하며 전월과 예상치를 상회했다.

➢ 주식

지난 주 미국 정부가 시리아 정부의 화학 무기 사용과 관련해 조만간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미국 증시는 크게 흔들렸다.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공포지수로 알려진 VIX(변동성지수)는 전 주 13.98에서 17.01까지 올라가며 다우와 S&P500지수는 지난 한 주간 각각 1.3%, 1.7% 하락하며, 2012년 3월 이후 월간 기준 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대표 종목들의 하락에 따라 그 동안의 상승폭을 내주며 1.9% 하락했다. 섹터별로는 시리아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 영향으로 S&P에너지 섹터가 0.2% 하락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경기 민감주인 금융, 산업재 섹터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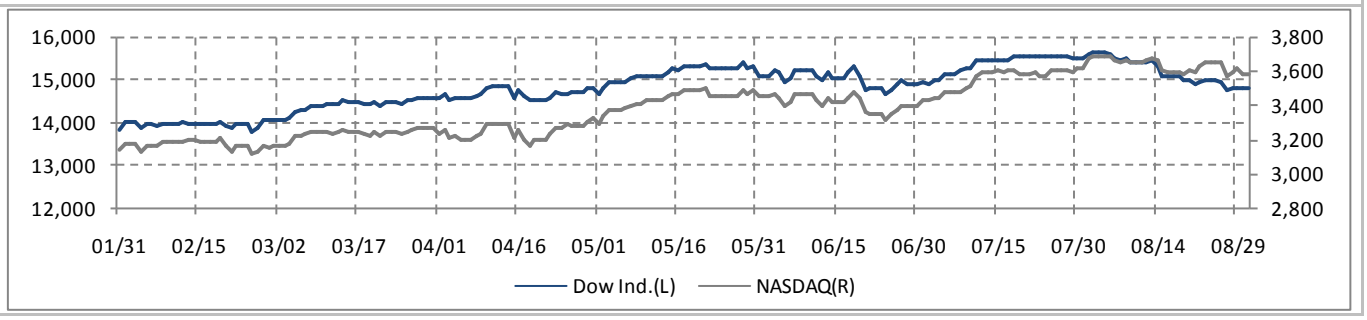
➢ 채권 & 외환

최근 며칠 동안 발표된 경제지표가 부진하고 미국과 시리아의 긴장감이 감돌자 안전자산인 국채 수요가 높아져 지난 주 10 년 국채 수익률은 3bp 하락하며 2.78%을 기록했다. 또 미국 국채 입찰 수요가 국채가격 상승에 긍정적 재료로 작용했다. 달러 역시 불안심리 확대로 상승했다.

Exhibit 3 주간 경제 지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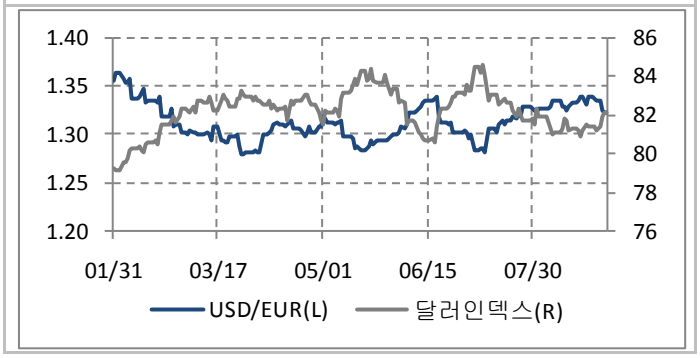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단위	지표			변화치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시장 대비	직전 대비
발표	2013-08-26	미국	내구재 주문	(%)	-4.00	-7.30	3.90	-3.30	-11.20
발표	2013-08-26	미국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4.00	5.00	4.40	1.00	0.60
발표	2013-08-27	미국	S&P/케이스쉴러 주택가격 지수 NSA		159.30	159.54	156.18	0.24	3.36
발표	2013-08-27	미국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0.00	14.00	-11.00	14.00	25.00
발표	2013-08-27	미국	소비자기대지수		79.00	81.50	81.00	2.50	0.50
발표	2013-08-28	미국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		-2.50	-4.60		2.10
발표	2013-08-28	미국	미결주택매매(전월대비)	(%)	0.00	-1.30	-0.40	-1.30	-0.90
발표	2013-08-29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천)	332.00	331.00	337.00	-1.00	-6.00
발표	2013-08-29	미국	GDP 연간화 QoQ	(%)	2.20	2.50	1.70	0.30	0.80
발표	2013-08-29	미국	개인소비	(%)	1.70	1.80	1.80	0.10	0.00
발표	2013-08-30	미국	개인소득	(%)	0.20	0.10	0.30	-0.10	-0.20
발표	2013-08-30	미국	미시간대 기대지수		80.50	82.10	80.00	1.60	2.10
예정	2013-09-03	미국	Markit 미국 PMI 최종		54.00				
예정	2013-09-03	미국	건설지출 전월대비	(%)	0.30		-0.60		
예정	2013-09-03	미국	ISM 제조업지수		54.00		55.40		
예정	2013-09-04	미국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			-2.50		
예정	2013-09-04	미국	무역수지	($십억)	-38.80		-34.20		
예정	2013-09-05	미국	총 차량판매	(백만)	15.80		15.73		
예정	2013-09-05	미국	ADP취업자 변동	(천)	185.00		200.00		
예정	2013-09-05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천)	330.00		331.00		
예정	2013-09-05	미국	제조업수주	(%)	-3.50		1.50		
예정	2013-09-05	미국	ISM 비제조업지수		55.00		56.00		
예정	2013-09-06	미국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천)	180.00		162.00		
예정	2013-09-06	미국	실업률	(%)	7.40		7.40		

Exhibit 4 미국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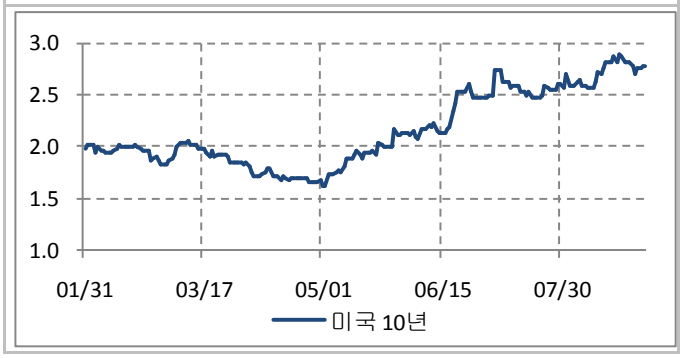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5 달러 인덱스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6 미국 10 년 채권 수익률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7 미국 주요 섹터별 수익률

	종가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MSCI AC World	364.0	-2.2	-2.3	-0.9	7.1
다우종합	14,810.3	-1.3	-4.4	-2.0	13.0
NASDAQ	3,589.9	-1.9	-1.0	3.9	18.9
S&P 500	1,635.0	-1.7	-3.0	0.3	14.6
S&P 500 에너지	594.8	-0.2	-2.1	0.7	11.6
S&P 500 소재	254.4	-1.8	-0.2	0.6	7.1
S&P 500 산업재	379.9	-2.5	-2.8	1.2	15.6
S&P 500 경기소비재	456.2	-1.6	-3.0	2.8	21.3
S&P 500 필수소비재	406.3	-1.7	-4.5	-1.5	12.6
S&P 500 헬스케어	568.8	-1.1	-3.6	2.3	22.9
S&P 500 금융	261.5	-3.1	-5.2	-2.0	18.2
S&P 500 IT	505.0	-2.3	-0.8	-0.6	8.9
S&P 500 통신서비스	150.2	-1.0	-4.1	-3.1	2.9
S&P 500 유틸리티	188.4	-1.0	-5.5	-1.0	6.1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8 미국 주요 종목 등락률

종목명	종가	수익률(%)			
	(USD)	(1 주)	(1 개월)	(3 개월)	(YTD)
VODAFONE	32.4	8.0	8.0	11.7	28.4
AMGEN INC	108.9	3.2	0.6	8.4	26.4
FACEBOOK INC-A	41.3	1.8	12.2	69.6	55.1
CELGENE CORP	140.0	1.2	-4.7	13.2	78.4
GILEAD SCIENCES INC	60.3	1.1	-1.8	10.6	64.1
HOME DEPOT INC	74.5	0.8	-5.7	-5.3	20.4
BIOGEN IDEC INC	213.0	0.8	-2.3	-10.3	45.5
MICROSOFT CORP	33.4	-3.9	4.9	-4.3	25.0
JPMORGAN	50.5	-3.4	-9.3	-7.4	14.9
EBAY INC	50.0	-3.2	-3.3	-7.6	-2.0
AMAZON.COM INC	281.0	-3.1	-6.7	4.4	12.0
BANK OF AMERICA	14.1	-3.1	-3.3	3.4	21.6
APPLE INC	487.2	-2.8	7.7	8.3	-8.4
GENERAL ELECTRIC CO	23.1	-2.7	-5.0	-0.8	10.2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9 미국 주요 채권 지표

주요 채권	종가(%)	수익률(bp)		
		(1 주)	(1 개월)	(3 개월)
국고채 10년	2.78	-3.0	20.8	65.6
국고채 5년	1.64	2.3	26.3	62.4
LIBOR 3M	0.26	-0.3	-0.6	-1.6
EUR-LIBOR 3M	0.15	0.2	0.1	3.9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0 달러 환율 추이

주요 환율	종가	통화가치 변동률(%)		
		(1 주)	(1 개월)	(3 개월)
달러 인덱스	81.81	0.5	0.4	-1.9
USD/EUR	1.32	-1.2	-0.2	1.7
JPY/USD	98.14	0.6	-0.5	2.4
CNY/USD	6.12	0.0	0.1	0.2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2. 유럽

➢ 경제

지난 주 유로존 경제 지표는 최근의 회복세를 재확인하기에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 지역의 회복세에 대한 기대 심리는 상승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표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독일 IFO 기업환경 지수, 프랑스 경기기대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했다. 또 8 월 유로존 경기신뢰지수가 전달의 92.5 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95.2 를 기록하며 4 개월 연속 상승했고 예상치 93.8 를 상회했다. 하지만 독일의 8 월 실질 실업률이 5 월 이후 6.8%로 유지되며 개선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유로존 7 월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12.1%를 기록했는데, 실업자 수가 전달보다 1 만 5000 명 줄어든 192 만 3000 명으로 소폭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로존 회복에 대한 판단은 지표 개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주식

유럽 증시는 시리아 공습 변수를 둘러싼 불안감에 두 주 연속 하락세로 마감했다. 특히 이탈리아 정국 불안 조짐이 더해져 남유럽 재정 위기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다. 세금 횡령으로 대법원의 실형 선고를 받은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가 연립정부 중단을 직접 거론해 이탈리아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범유럽지수인 스톡스유럽 50 지수는 전일 대비 2.7% 하락한 2,749.4 로 거래를 마쳤고, 스페인 IBEX 35 지수가 4.6% 하락, 이탈리아 FTSE MIB 지수가 3.8% 하락했다. 또 선진 유럽인 독일 DAX, 프랑스 CAC 40 지수도 각각 3.7%, 3.3% 하락하며 유럽 전체 지역에서의 큰 폭의 하락세가 보여졌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1.2% 하락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었다. 이와 같은 하락세는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감 증가에 더해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유럽의 주가에 대한 부담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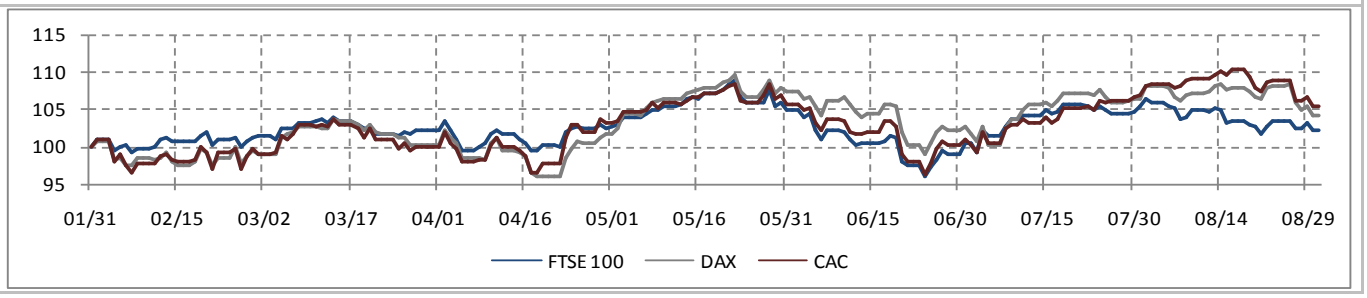
➢ 채권 & 외환

지난 주 채권 시장은 이탈리아 정국 불안 심리와 시리아 사태 영향으로 남유럽 재정 위기국의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3 차 구제금융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채권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했다. 또 9 월 독일 총선을 앞둔 불확실성에 유럽 지역의 채권 수요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분간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유럽 지역의 경기 회복세, 정치적 이슈 요인으로 제한된 수요에 따른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hibit 11 유럽 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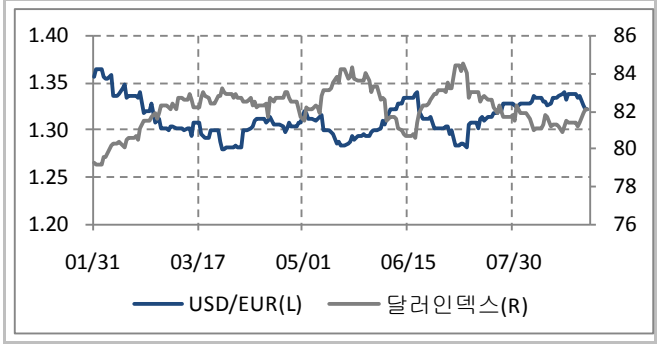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단위	지표			변화치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시장 대비	직전 대비
발표	2013-08-27	독일	IFO 기업환경		107.00	107.50	106.20	0.50	1.30
발표	2013-08-29	프랑스	경기기대지수		95.00	98.00	95.00	3.00	3.00
발표	2013-08-29	독일	실업률	(%)	6.80	6.80	6.80	0.00	0.00
발표	2013-08-29	독일	CPI (전월대비)	(%)	0.10	0.00	0.50	-0.10	-0.50
발표	2013-08-30	독일	소매판매 (전월대비)	(%)	0.60	-1.40	-0.80	-2.00	-0.60
발표	2013-08-3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0.36	-0.21	-0.52	0.15	0.31
발표	2013-08-30	유로존	경기기대지수		93.80	95.20	92.50	1.40	2.70
발표	2013-08-30	유로존	실업률	(%)	12.10	12.10	12.10	0.00	0.00
발표	2013-08-30	유로존	CPI 예상 YoY	(%)	1.40	1.30	1.60	-0.10	-0.30
예정	2013-09-02	유로존	PMI 제조업		51.30		51.30		
예정	2013-09-02	영국	PMI 제조업		55.00		54.60		
예정	2013-09-04	유로존	PMI 서비스		51.00		51.00		
예정	2013-09-04	유로존	PMI Composite		51.70		51.70		
예정	2013-09-04	영국	PMI 서비스		59.70		60.20		
예정	2013-09-04	유로존	GDP SA 전기대비	(%)	0.30		0.30		
예정	2013-09-04	유로존	가계소비 전분기대비	(%)	0.10		0.00		
예정	2013-09-04	유로존	정부지출 전분기대비	(%)	0.30		-0.20		
예정	2013-09-04	유로존	소매판매 (전월대비)	(%)	0.20		-0.50		
예정	2013-09-05	영국	BOE 자산 매입 목표	(십억)	375.00		375.00		
예정	2013-09-05	유로존	ECB 금리 공시	(%)	0.50		0.50		
예정	2013-09-06	독일	무역수지	(십억)	16.50		16.90		
예정	2013-09-06	독일	산업생산 SA MoM	(%)	-0.50		2.40		

Exhibit 12 유럽 주요 증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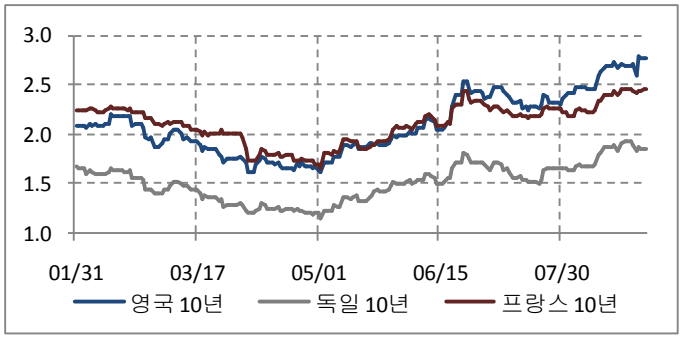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3 유로화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4 주요국 채권 금리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5 유럽 주요국 수익률

	종가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MSCI EMU	89.9	-3.6	-1.1	-0.8	5.8
FTSE EUROTOP 100	2,430.5	-2.2	-1.1	-2.0	4.5
Euro Stoxx 50	2,749.4	-2.7	-0.7	-0.7	4.3
영국 FTSE 100	6,412.9	-1.2	-3.1	-2.6	8.7
독일 DAX	8,103.2	-3.7	-2.1	-2.9	6.4
프랑스 CAC 40	3,933.8	-3.3	-1.5	-0.4	8.0
이탈리아 FTSE MIB	16,682.2	-3.8	1.2	-3.1	2.5
스페인 IBEX 35	8,290.5	-4.6	-1.7	-0.4	1.5
포르투갈 PSI 20	5,807.8	-3.4	1.5	-2.2	2.7
그리스 ASE	899.9	-2.7	1.7	-11.3	-0.9
스위스 SPI	7,353.9	-3.1	-0.6	-1.9	16.9
러시아 RTS	1,292.6	-2.9	-1.6	-2.9	-15.4
터키 ISE 100	66,306.4	-2.4	-9.6	-22.9	-15.2
남아공 TOP40	37,863.9	-2.0	2.8	0.7	8.8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6 유럽 주요 종목 등락률

국가	종목명	섹터	시가총액 (USD bn)	수익률(%) (1 주)	(1 개월)
영국	PETROFAC LTD	에너지	7.4	11.5	5.5
영국	VODAFONE GROUP PLC	통신서비스	154.9	8.5	4.4
영국	G4S PLC	산업재	5.7	5.7	15.6
영국	BG GROUP PLC	에너지	64.7	5.1	3.4
영국	EVRAZ PLC	소재	2.9	4.4	33.2
영국	PENNON GROUP PLC	유틸리티	4.0	3.2	0.7
영국	MELROSE INDUSTRIES PLC	산업재	5.8	3.2	4.4
영국	SERCO GROUP PLC	산업재	4.2	-11.9	-12.7
프랑스	RENAULT SA	경기소비재	21.2	-9.2	-8.6
영국	INTL CONSOLIDATED AIRLINE-DI	산업재	8.4	-8.2	-1.6
스위스	STMICROELECTRONICS NV	IT	7.3	-7.9	-6.5
독일	DAIMLER AG-REGISTERED SHARES	경기소비재	73.5	-6.8	-0.7
프랑스	CREDIT AGRICOLE SA	금융	25.3	-6.4	6.5
독일	CONTINENTAL AG	경기소비재	30.3	-6.1	-3.2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7 유로화 환율 / 주요국 채권 지표

주요 환율/채권	종가(%)	변동률(%, bp)		
		(1 주)	(1 개월)	(3 개월)
USD/EUR	1.32	-1.2	-0.2	1.7
영국 10년	2.77	6.5	41.5	77.0
독일 10년	1.86	-7.3	19.2	35.7
프랑스 10년	2.47	-0.3	23.9	39.8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8 남유럽 채권 지표

주요국 채권	종가	변동률(bp)		
		(1 주)	(1 개월)	(3 개월)
이탈리아 10년	4.40	7.5	-0.6	24.3
스페인 10년	4.53	8.1	-11.7	10.1
포르투갈 10년	6.66	16.7	32.9	110.7
그리스 10년	10.16	24.6	21.8	88.5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3. 아시아

➢ 경제

중국 8 월 제조업 PMI 가 51 로 시장 예상치(50.6)와 전월치(50.3)를 모두 상회하여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생산지수, 신규주문지수, 신규수출주문지수 등 세부지표들이 일제히 반등하여 중국 제조업 경기가 전월에 이어 회복세를 나타냈다. 지난 28 일 통계국에서 발표한 주요 공업기업의 산업이익 역시 4,195.5 억 위안으로 YoY+11.6% 증가세를 보였다. 6 월말 이래 발표된 정부의 미니부양책, 유동성 개선 및 기업들의 생산력 증가와 이로 인한 수출 증가가 제조업 경기 회복세로 이어졌다.

일본 7 월 소비자물가는 0.7% 상승률을 보여 지난달에 이어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일본의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엔저에 따른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8 월 제조업 PMI 는 52.2 로 전월치(50.7)를 상회하여 경기확장세를 나타냈다.

금주에는 8 월 중국 HSBC 제조업/서비스업 PMI 지표와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비제조업 PMI 발표가 있다.

➢ 주식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의 시리아 내전 개입 가능성에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중국 증시 역시 시리아 사태에 대한 우려로 주중 약세를 보였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상해자유무역 시범지역 설립에 대한 승인으로 해당 시범지역내 무역, 금융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으로 관련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관련주가 연일 강세를 보여 상해종합증시는 전주 대비 2% 상승하였다. 일본 증시도 시리아쇼크 우려 및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로 닛케이지수가 전주 대비 1.5%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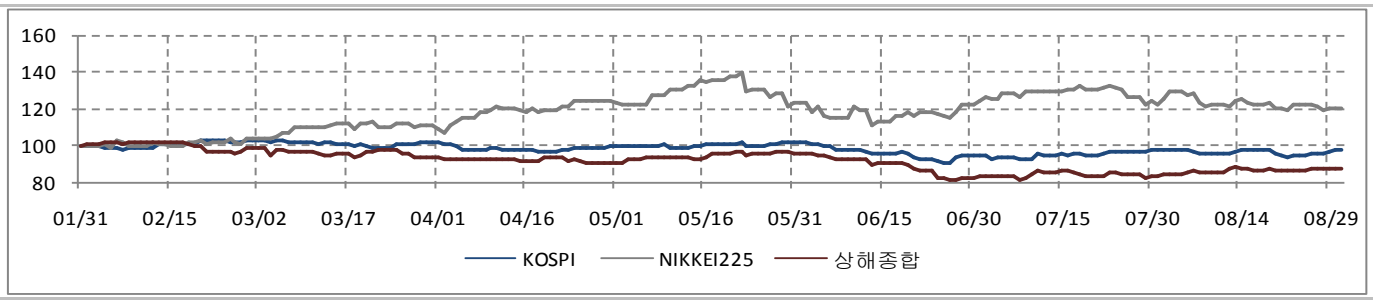
➢ 채권 & 외환

중국의 국채선물시장이 이르면 9 월초에 재개 될 것으로 보여 국채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은행간 단기금리인 Shibor O/N 은 3.03%로 전주에 이어 안정세를 보였다. 엔/달러 환율은 시리아사태 불안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여 98 엔대로 마감을 하였다.

Exhibit 19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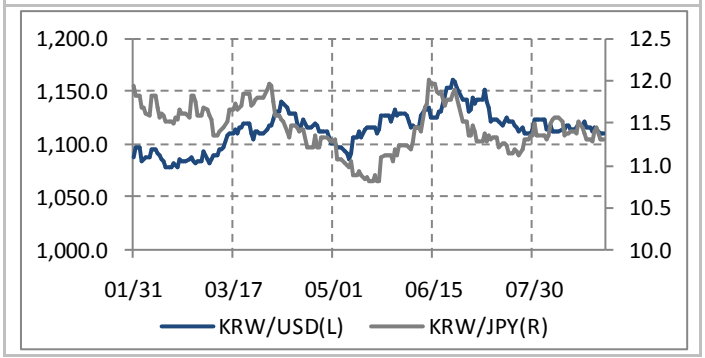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단위	지표			변화치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시장 대비	직전 대비
발표	2013-08-27	한국	소비자 기대지수			105.00	105.00		0.00
발표	2013-08-27	중국	선행지수			100.18	99.81		0.37
발표	2013-08-28	한국	기업경기실사 제조업			77.00	73.00		4.00
발표	2013-08-30	한국	산업생산 SA 전월비	(%)	0.30	-0.10	0.60	-0.40	-0.70
발표	2013-08-30	일본	Markit/JMMA 제조업 PMI			52.20	50.70		1.50
발표	2013-08-30	일본	총 가계지출 전년비	(%)	0.30	0.10	-0.40	-0.20	0.50
발표	2013-08-30	일본	실업률	(%)	3.90	3.80	3.90	-0.10	-0.10
발표	2013-08-30	일본	전국 CPI (전년대비)	(%)	0.70	0.70	0.20	0.00	0.50
발표	2013-08-30	일본	광공업생산 MoM	(%)	3.60	3.20	-3.10	-0.40	6.30
발표	2013-08-30	일본	자동차 생산 YoY	(%)		-1.50	-10.00		8.50
발표	2013-09-01	한국	수출 YoY	(%)	3.8	7.7	2.6	3.9	5.1
발표	2013-09-01	한국	수입 YoY	(%)	3.3	0.8	3.2	-2.5	-2.4
발표	2013-09-01	한국	무역수지	($백만)	2,250	4,916	2,540	2,666	2,376
발표	2013-09-01	중국	제조업 PMI		50.60	51.00	50.30	0.40	0.7
예정	2013-09-02	한국	CPI (전월대비)	(%)	0.40		0.20		
예정	2013-09-02	한국	HSBC/Markit 제조업 PMI				47.20		
예정	2013-09-02	중국	HSBC/Markit 제조업 PMI		50.20		47.70		
예정	2013-09-02	일본	자동차 판매 YoY	(%)			-13.50		
예정	2013-09-03	중국	비제조업 PMI				54.10		
예정	2013-09-04	중국	HSBC/Markit 서비스 PMI				51.30		
예정	2013-09-05	한국	GDP SA 전기대비	(%)			1.10		

Exhibit 20 아시아 주요증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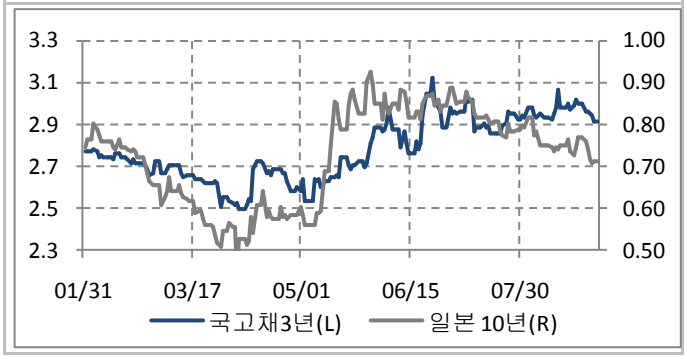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1 원화 환율추이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22 한국 국고채 3 년 VS 일본 10 년 추이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3 아시아 주요국 수익률

	종가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MSCI Asia Pacific	130.2	-0.9	-1.6	-3.5	0.6
MSCI EM	929.5	-0.3	-1.9	-7.9	-11.9
한국 KOSPI	1,907.5	2.0	-0.3	-4.7	-4.5
일본 NIKKEI 225	13,459.7	-1.5	-1.5	-2.3	29.5
중국상해종합	2,098.4	2.0	5.2	-8.8	-7.5
홍콩항생	21,731.4	-0.6	-0.7	-3.0	-4.1
호주 ASX 200	5,135.0	0.2	1.6	4.2	10.5
뉴질랜드 NZX 50	4,541.0	0.4	0.1	0.7	11.7
인도 SENSEX 30	18,336.3	-1.0	-5.2	-7.2	-5.6
싱가포르 STI	3,028.9	-1.9	-6.0	-8.5	-4.4
태국 SET	1,294.3	-3.3	-9.1	-17.1	-7.0
인도네시아자카르타	4,103.6	-1.6	-11.0	-19.0	-4.9
필리핀PSEi	6,075.2	-1.4	-8.5	-13.5	4.5
베트남호치민	472.7	-2.9	-3.9	-8.8	14.3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4 아시아 주요종목 등락률

국가	종목명	섹터	시가총액 (USDbn)	수익률(%) (1 주)	(1 개월)
홍콩	CHINA MERCHANTS HLDGS INTL	산업재	8.5	11.5	8.0
중국	WANT WANT CHINA HOLDINGS LTD	필수소비재	19.6	11.2	9.5
한국	HYUNDAI MOTOR CO	경기소비재	49.4	9.0	7.1
한국	KIA MOTORS CORPORATION	경기소비재	24.5	7.3	5.5
한국	SAMSUNG C&T CORP	산업재	8.1	7.3	3.1
한국	KOREA ELECTRIC POWER CORP	유틸리티	17.7	6.8	7.2
중국	BAOSHAN IRON & STEEL CO-A	소재	11.6	6.7	7.5
중국	KANGMEI PHARMACEUTICAL CO-A	헬스케어	6.7	-15.2	-8.7
중국	CHENGDU DR PENG TELECOM-A	통신서비스	3.5	-12.7	7.5
홍콩	KUNLUN ENERGY CO LTD	에너지	11.7	-9.3	-1.1
일본	KANSAI ELECTRIC POWER CO INC	유틸리티	10.5	-8.1	-8.1
일본	KAO CORP	필수소비재	15.1	-5.9	-8.6
중국	JIANGSU HENGRUI MEDICINE C-A	헬스케어	7.1	-5.6	-4.3
일본	CHUBU ELECTRIC POWER CO INC	유틸리티	9.5	-5.2	-9.7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5 아시아 주요채권 지표

주요채권	종가(%)	수익률(bp) (1 주)	(1 개월)	(3 개월)
한국 국채 5년	3.16	-16.8	-5.6	23.4
일본 10년	0.71	-6.1	-8.9	-14.4
중국 10년	4.04	3.2	30.4	60.0
호주 10년	3.90	-15.3	17.1	53.8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26 달러 환율 지표

주요환율	종가	통화가치변동률(%) (1 주)	(1 개월)	(3 개월)
KRW/USD	1,109.80	0.65	1.21	1.79
JPY/USD	98.14	0.59	-0.52	2.35
CNY/USD	6.12	0.03	0.14	0.23
AUD/USD	1.12	-1.42	-1.40	-7.00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7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 13/08/23 상하이시를 자유무역 시범지역으로 정식 승인

√ **시범지역**-상하이 자유무역지구

√ **면적**-와이가오챠오 보세지구, 와이가오챠오 물류파크, 양산보세구, 푸둥공항 종합보세구 4개 지역을 포함한 2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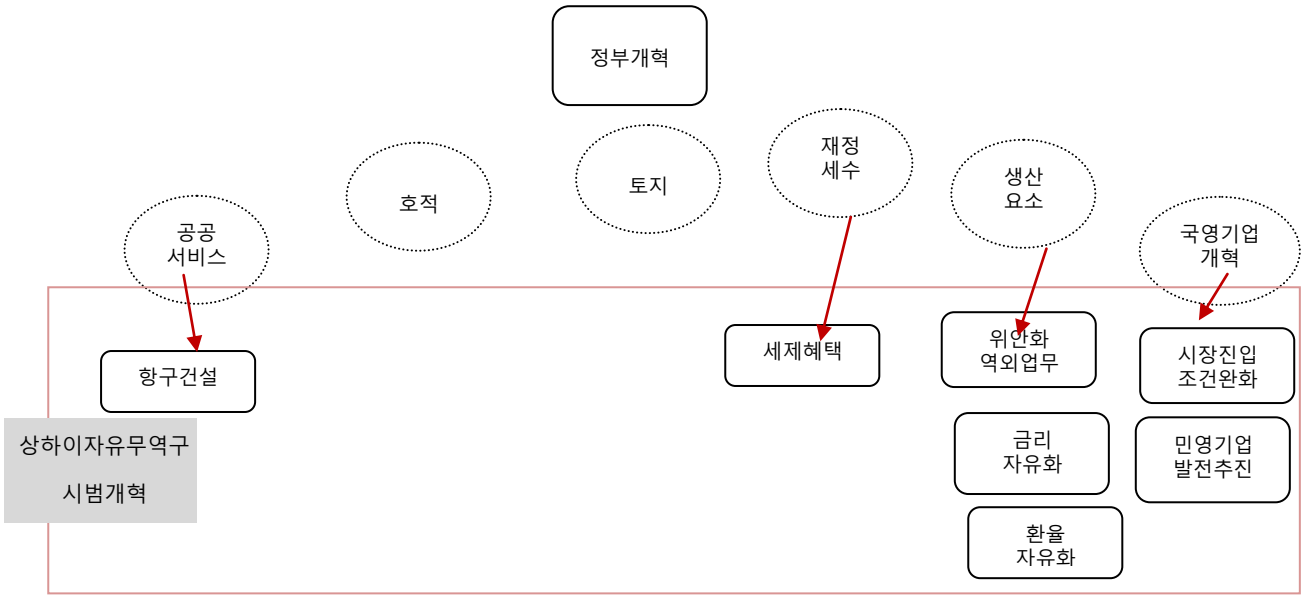
√ **경제적 배후지**- 양쯔강 삼각주

√ **발전중점**- 무역, 해운, 금융, 위안화 태환

√ **지역적 우세**- 국제적 금융도시

Source:,리딩투자증권, SWS 자료, 언론사

Exhibit 28 신정부 개혁의 시험대 –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Source:FnGuide,리딩투자증권, SWS 자료

➢ **대외개방 성장방식의 전환**

상하이 자유무역지구(FTZ) 시범지역은 현지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라 전국적 개혁개방의 시험대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1978 년 개혁개방에 힘입어 그동안 빠른 성장세를 보이던 경제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 정책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였다. 시범지역의 설립은 무역 자유화 추진에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투자와 금융의 자유화이다. 금리 자유화, 환율 자유화, 금융상품 개발, 역외업무, 금융업의 대외개방 및 해외투자와 외자유치 개방을 FTZ 에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FTZ 내에서만 창출될 것이나 향후 시범지역의 확대와 더불어 파급효과가 전국적 범위에 이르러 신개념의 개혁개방으로 부진한 대외무역과 서비스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전주 한국증시는 서방국가들의 시리아 침공 우려가 9 월로 미루어 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에 힘입어 KOSPI 는 2.0% 상승하였다.

양적완화 축소 시행에 대한 불안감과 시리아 대량살상무기에 관련 서방국가들의 공습 준비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일부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거시경제 안전성이 돋보이고, 상반기 뱅가드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을 통해 주가 상승률이 저조함에 따라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진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의외의 상승국면이 진행되었다. 추가 상승 여부는 외국인 매수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불안정한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주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한다

Exhibit 29 증시주변자금 현황

(십억원)	Close	1W(△)	1M(△)	3M(△)	6M(△)	YTD(△)
고객예탁금	17,802.4	-271	170	-687	173	-212
국내주식형펀드	90,976	-343	-1,804	79	-1,601	-3,412
신용융자(KSE+KOSDAQ)	4,419	-87	-119	-523	339	507
MMF	68,407	-1,613	-5,830	-6,463	-11,922	4,736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30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누적,KSE+KSQ,십억원)	주간	월간	3 개월	6 개월	YTD
외국인	1,269.5	2,216.2	-1,993.6	-5,761.5	-5,924.5
기관투자가	45.7	-73.7	3,444.2	8,228.1	9,558.1
(연기금)	171.0	1,190.9	2,922.9	5,331.9	7,059.4
개인	-1,251.5	-1,943.0	-1,144.7	-1,513.9	-2,224.3
기타	-63.7	-199.5	-305.9	-952.6	-1,409.4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31 글로벌 증시대비 국내증시 변동

섹터	주간수익률(%)			투자자매매동향 (5 일누적,십억원)		
	한국	MSCIAC	편차	기관	외국인	개인
전체	2.5	-2.2	4.7	36.8	1,286.1	-1,258.3
에너지	1.5	-0.6	2.1	24.6	-76.3	50.0
소재	2.0	-3.0	5.0	92.4	78.1	-157.3
산업재	2.6	-2.7	5.4	128.0	109.6	-226.1
경기소비재	4.7	-2.2	6.9	107.6	415.5	-505.3
필수소비재	0.7	-2.2	2.9	-23.0	-23.1	37.1
의료	-6.3	-2.1	-4.3	-42.8	-178.3	222.2
금융	2.3	-3.0	5.3	-18.1	33.0	-18.7
IT	2.6	-1.4	4.0	-279.8	860.3	-546.2
통신서비스	4.0	-0.7	4.8	37.1	16.5	-53.0
유틸리티	4.7	-1.8	6.5	10.8	50.7	-61.1

Source:IBES,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32 주간 투자주체별 주요 순매수 종목

주간기관순매수		주간외국인순매수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현대모비스	56.4	삼성전자	596.7
현대중공업	51.5	NAVER	355.6
LG화학	49.1	현대차	208.4
기아차	45.9	기아차	148.9
삼성물산	45.3	한국전력	54.4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33 주간 투자주체별 주요 순매도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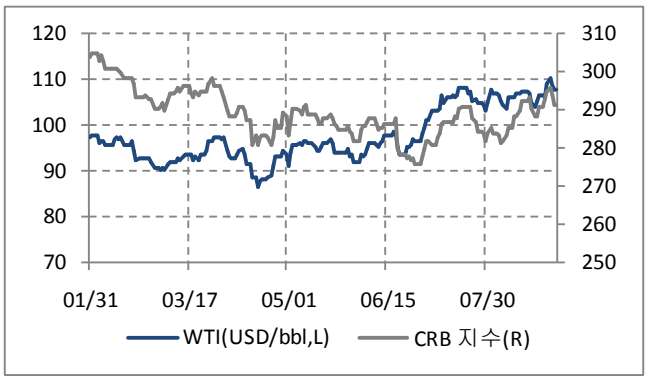
주간기관순매도		주간외국인순매도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NAVER	-164.2	셀트리온	-156.4
삼성전자	-64.6	NHN엔터	-128.2
SK하이닉스	-62.4	SK이노베이션	-48.1
현대차	-49.5	KT	-26.4
효성	-36.6	KB금융	-22.7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4.원자재 가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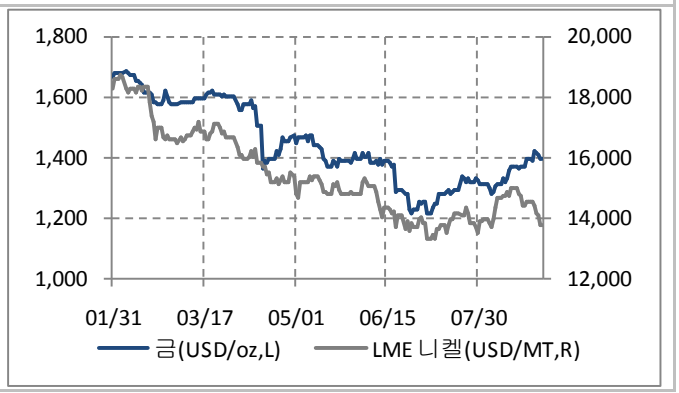
주말 시리아 공습이 예상됨에 따라 원유 가격은 급등세를 보였으나 UN 안보리의 부결과 미국/영국의 의회 승인 절차, UN 보고서 발표 예정 등의 절차적 문제로 공습이 9 월로 미뤄짐에 따라 급등했던 유가의 상승은 다소 완화 되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귀금속 가격은 상승을 보이다 보합세로 마감하였으며 비철금속 가격은 급락세를 보였다. 한편, 미상무부의 농산물 생산전망 감소의 영향으로 곡물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다.

Exhibit 34 원유(WTI)와 CRB 상품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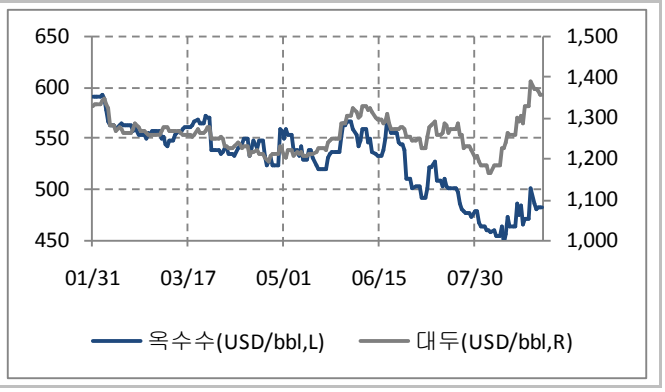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5 금과 LME 니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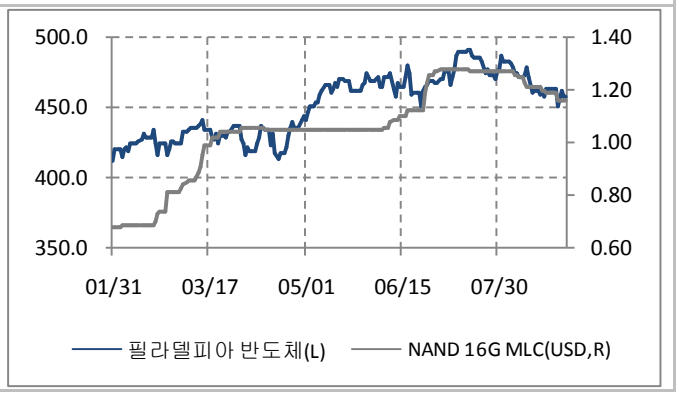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6 옥수수와 대두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7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와낸드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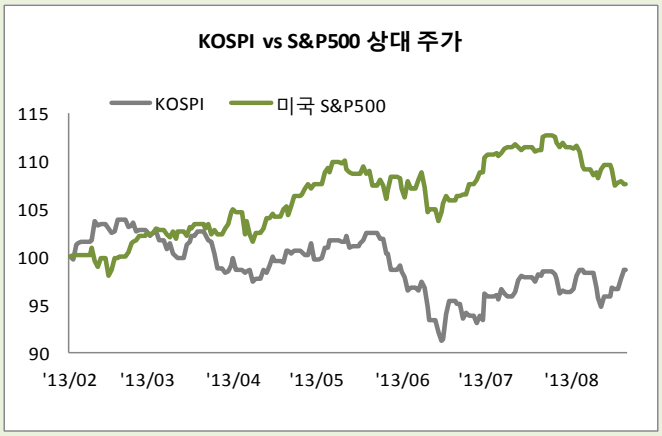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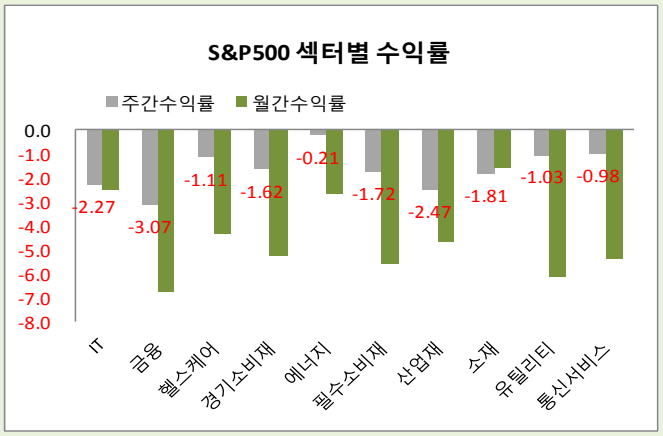
Exhibit 38 주요원자재가격동향

주요원자재	종가 (USD)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WTI(NYMEX)	107.7	1.0	2.5	17.0	17.2
Brent(ICE)	114.0	2.7	6.6	14.5	7.8
천연가스(NYMEX)	3.6	1.7	3.2	-10.7	-1.3
금(NYMEX)	1,396.1	0.0	6.4	-0.1	-17.2
은(CME)	23.5	-1.1	19.5	5.2	-22.7
구리(LME)	7,100.0	-3.5	3.2	-2.9	-10.5
아연(LME)	1,905.0	-4.1	3.4	-1.1	-8.4
니켈(LME)	13,800.0	-5.0	-0.5	-6.9	-19.1
알루미늄(LME)	1,813.5	-4.2	0.5	-4.9	-12.5
CRB 상품지수	291.2	0.1	2.5	3.3	-1.3
밀(CBOT)	654.0	1.2	-3.4	-10.4	-20.3
옥수수(CBOT)	482.0	2.6	0.6	-15.0	-19.6
대두(CBOT)	1,357.5	2.2	12.5	4.1	4.2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457.7	-1.3	-4.2	-2.3	19.2
NAND 16Gb MLC	3.1	3.0	2.7	2.7	61.9
DDR3 1G 1333MHz	1.2	-2.5	-8.7	10.5	73.1
Baltic Dry Index	1,132.0	-2.8	6.6	39.9	61.9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5. 미국섹터/종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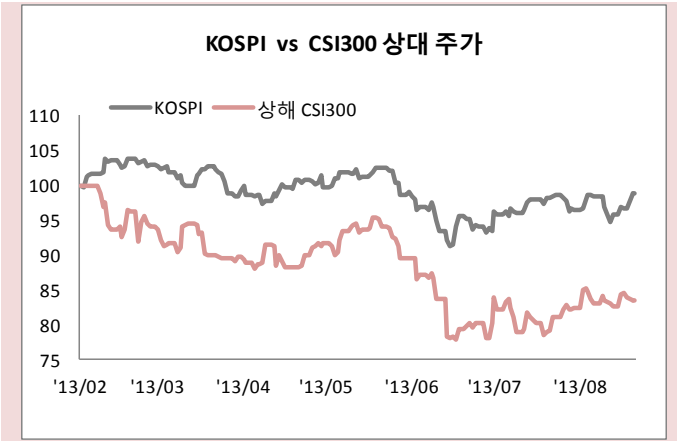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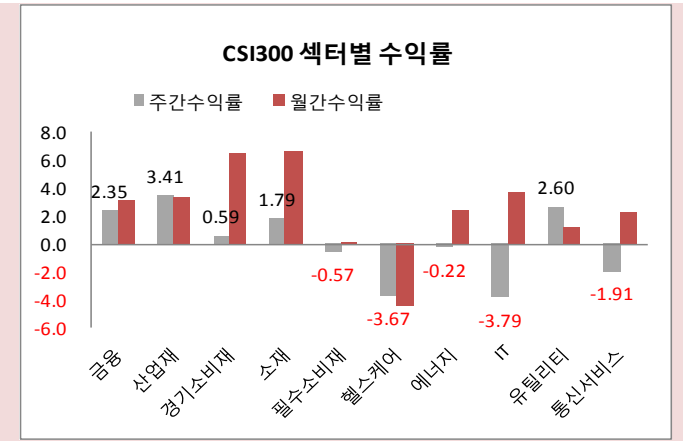
섹터	종목명	티커	주간(%)	섹터 / 종목 이슈
에너지	엑슨모빌	XOM	-0.4	■ **유가 상승,** 시리아 자체는 석유를 그다지 생산하지 않지만 중동분쟁이 일어날 경우 세계 석유 매장량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공급상의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글로벌 증시 하락세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음. 특히 셰브론의 상승폭이 컸는데, 동사의 현재 PER 는 9.88 배로 엑슨모빌 11.24 에 비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반면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따르면 2013F EPS 성장률은 전년대비 1% 하락이 예상돼 엑슨모빌의 약 15% 증가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예상
	셰브론(CVX)	CVX	0.8	
	슐럼버그(SLB)	SLB	-0.9	
소재	몬산토	MON	1.7	■ **S&P500 소재 섹터, 동사의 12M FWD EPS 월간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월간 기준으로 0.17% 상승하며 10 개 섹터 내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컸음. 금, 은 가격의 회복에 따른 것** ■ **몬산토,** 다국적 생화학 제조업체. 유전자 조작 작물 종자의 세계 점유율은 90%을 차지하고 있음. 옥수수 가격 하락으로 5 월 중순 이후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옥수수 가격과의 상관 관계는 0.1 이하를 기록. 지역적으로 다양한 경작지를 두고 있고, 옥수수 외에 콩, 면화 야채 등을 취급하고 있어 옥수수 가격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해 지고 있는 것. UBS 에 따르면 옥수수 가격의 회사의 이익과 주가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지역별 곡물 가격 안정과 동사의 이익 추정치가 감소하지 않는 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현재 PER 는 21.52, ROE 19%, 2013F EPS 성장률은 약 27%로 견조할 것으로 전망
	듀폰	DD	-2.2	
	바릭골드	ABX	-4.6	
산업재	GE	GE	-2.7	■ **3M,** 헤지 펀드 투자자들이 최근 동사에 대해 매도 포지션을 취한 것이 주목되고 있음. 동사의 연간 유동성 비율이 90%~100%로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업이익 흐름이 부진한 것이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 **GE**, 소비자대출사업부인 GE 캐피털을 분사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주 후반 호재로 작용
	UPS	UPS	-1.8	
	3M	MMM	-0.7	
경기소비재	아마존닷컴	AMZN	-3.1	■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임금 인상 반대 시위, 파업이 미국의 60 개 도시에서 진행 중이면서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 패스트 푸드 업체 직원들이 최저 임금에 대해 항의하고 나선 것. 전국적인 파업인지라 패스트 푸드 경영진들이 이에 대한 개입에 나설 것. 재정적으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 없음.
	맥도날드	MCD	-0.8	
	홈디포	HD	0.8	
필수소비재	월마트	WMT	-0.6	■ **월마트, 인도 매장 확장 보류.** 2009 년 인도시장에 진출한 월마트는 현재 현지업체인 바티 엔터프라이즈와의 합작 형태로 20 개의 도매 매장을 인도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10 월 이후에는 신규 대형 아웃렛 매장을 열지 않고 있음. ■ **허벌라이프,** 장기적으로 두 자리수의 매출, 이익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7 월 이후 주가에 호재로 반영되고 있음. 특히 이머징 시장의 잠재력이 향후 동사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동사는 건강관리 및 다이어트 제품을 6 대주 90 개 국가에서 판매하며 그 범위를 늘려가고 있음. 15 분기 연속으로 2 자리 수의 매출과 이익 성장률을 보였음. 이에 따라 올해 초와 비교해 주가가 약 2 배 상승했음. 지난 해 말 견조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 메니저 빌 에크먼을 비롯해 헤지 펀드들이 허벌라이프의 이른바 '네트워크 마케팅' 판매 방식을 '피라미드 사기'라고 깎아내리며 24 일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턴어라운드에 성공해 승승장구하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음. 글로벌 지역에서의 사업 확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
	P&G	PG	-2.6	
	허벌라이프	HLF	-5.1	

섹터	종목명	티커	주간(%)	섹터 / 종목 이슈
헬스케어	존슨앤존슨	JNJ	-2.3	■ **암젠,** 미국 생명공학기업 암젠(AmGen)이 항암제 제조업체 오닉스 파마슈티컬(Onyx) 인수할 것으로 보임. 암젠이 제시한 인수가격은 주당 125 달러로 총 105 억 달러(약 11 조 7000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암젠의 제시가는 지난 6 월 말 오닉스 종가 86.82 보다 44%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 이번 인수가 체결될 시 2010 년 이후 3 번째로 큰 제약업계 인수로 기록될 것
	암젠	AMGN	3.2	
	악티비스	ACT	1.0	
금융	웰스파고	WFC	-3.9	■ **JP 모건 체이스,,** 미국 규제당국이 JP 모건체이스에 사상 최대 규모인 60 억달러의 과징금을 낼 것을 요구. 금융위기 발생 이전에 국책 모기지 회사들을 속여 악성 모기지 채권을 팔았다는 혐의. JP 모건은 전례 없는 규모의 과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음. 한편 JP 모건은 이 외에도 규제당국과 몇몇 법적 분쟁에 휩싸여 있어 법적 비용에 쓰기 위해 68 억 달러를 충당금으로 쌓아 놨다고 함 ■ **미국 대형 은행,** 미국 경제 회복세 순풍에 미국 대형 은행들도 호재를 맞고 있음.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은행들의 부실대출 규모는 전분기 대비 4.1% 감소된 것.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미국은행들의 2 분기 순익이 사상 최대인 422 억 달러(약 42 조 원)으로 집계. 전년대비 순익 증가폭이 뱅크오브아메리카가 63%로 가장 큼. JP 모건이 31% 증가, 씨티그룹이 42% 증가
	JP모건	JPM	-3.4	
	뱅크오브아메리카	BAC	-3.1	
IT	애플	AAPL	-2.8	■ **애플,** 애플이 타이완에 소재한 제품공급업체 2곳에 내년 처음 출시할 아이워치 생산량을 최대 6천300만대 이상 주문할 것이라고 보도됨 ■ **마이크로소프트,** 1) 스티브 발머 최고경영자(CEO)가 1년 내로 은퇴하겠다고 선언. 발머는 동사가 첨단기기와 서비스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 2) MS가 위치 기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포스퀘어에 전략적 투자를 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고 전함. 포퀘스트와 손 잡고 모바일,SNS 사업을 강화할 계획 ■ **페이스북,** 모바일 분야에서 두드러진 약진. 여론조산기관 이마케터 발표에 따르면 모바일 광고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 중인 것. 2012년 5.35%와 비교해 현재 약 15.8%로 세 배 가까이 상승한 것. 조만간 모바일 광고 매출이 데스크탑 매출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 단 모바일 시장 1위는 여전히 구글이 차지하고 있음(53.17%). 구글은 모바일 OS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세계 스마트폰 중 80%에 기본 설치돼 있음
	마이크로소프트	MS	-3.9	
	페이스북	FB	1.8	
통신서비스	AT&T	T	-1.3	■ **버라이즌커뮤니케이션즈,** 영국 보다폰과 합작 설립한 버라이즌 와이어리스 지분을 모두 인수하고 완전 자회사로 흡수할 계획. 보다폰이 보유 중인 와이어리스 지분 45%를 버라이즌이 1300억달러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 이러한 소식에 동사의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음. 하지만 이미 와이어리스를 통제하고 있어 기업의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 인수 자금으로 5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조달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 버라이즌은 융자를 받기 위해 은행들과 협의 중이며 현금 조달을 위해 채권 시장에 나갈 것으로 예상 ■ **통신서비스 업계 지각변동 시작.** 이번 거래로 보다폰은 풍부한 현금을 쥐게 되고 AT&T 등 다른 기업들이 통합에 나설 여지가 생김. 이번 거래는 경쟁이 심한 유럽 텔레콤 시장에서 기업 통합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나왔음.
	버라이즌컴즈	VZ	-0.5	
	T 모바일 US	TMUS	-2.3	
유틸리티	듀크에너지	DUK	-1.1	■ **유틸리티,** 지난 주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고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전 주 대비 상승했음. 이에 따라 S&P500 유틸리티 섹터는 약 1%에 그치며 상대적 하락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서던	SO	-1.4	
	엑셀론	EXC	-1.5	

Any Comment or News

- ✓ 미국 주택 시장 점검 : 미국 주택시장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7월 주거용 부동산 매매 가운데 전액 현금으로 이뤄진 거래가 40%(전년 31%, 전월 35%)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며 전액 현금 거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추이는 주택 매매 증가 및 가격 상승세와 맞물린 현상으로, 중장기적인 영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
- ✓ 10월 중순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가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위기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높여주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는 매달 8000만건에 달하는 정부 지출을 세수로 거둬들이는 현금으로 일일이 처리해야 함





섹터	종목명	티커	주간(%)	섹터 / 종목 이슈
석유화학	페트로 차이나	0857	-0.7	■ 시노펙(600028.SH), 상반기 매출액 1.4조 위안으로 YoY+5.0%, 순이익 294.2억 위안으로 YoY+24.1%. ■ 페트로차이나, 상반기 매출액 1.1조 위안으로 YoY+5.2%, 순이익 655.2억 위안으로 YoY+5.6%. 경기둔화로 화학품 매출액이 하락한 반면 환경규제로 천연가스 사업이 호조세.
	시노펙	0386	-2.3	
	시누크	0883	-1.4	
가전제품	TCL 통신	2618	1.4	■ 하이얼 전자, 상반기 매출액 289.79 억 위안으로 YoY+10.2%, 순이익 8.22 억 위안으로 YoY+15.4%. ■ 동방조명, 상반기 매출액 3.48 억 HKD 로 YoY-20%, 순이익 171 만 HKD 로 흑자전환.
	동방조명	0515	-5.5	
	하이얼 전자	1169	-7.0	
자동차	장성 자동차	2333	-0.1	■ BYD(1211.HK), 상반기 매출액 260.4 억 위안으로 YoY+15.3%, 순이익 4.2 억 위안으로 YoY+2524.24%. ■ 중국 자동차협회, 7 월 로컬브랜드 자동차 판매량은 43.55 만대로 YoY+5.8%, 증가속도와 시장점유율 모두 하락세. ■ 중국 자동차협회, 상반기 자동차 수출 YoY-1.81%, 자동차 부품 수출총액은 YoY-4.59%.
	지리 자동차	0175	1.7	
	BYD	1211	-13.6	
항공사	국제항공	0753	-2.9	■ 남방항공, 상반기 매출액 460 억 위안으로 YoY-4.2%, 순이익 3.02 억 위안으로 YoY-32.7%, ■ 국제항공, 상반기 매출액 460.19 억 위안으로 YoY-2.04%, 순이익 11.45 억 위안으로 YoY+9.85%.
	남방항공	1055	-9.0	
	동방항공	670	-2.5	
부동산	Sunac 차이나	1918	-1.6	■ Sunac China(1918 HK), 상반기 매출액 85.6 억 위안으로 YoY+99%, 순이익 7.52 억 위안으로 YoY+43%, 순부채비율 연초의 78.9%에서 71.8%로 하락. ■ Evergrande, 상반기 매출액 419.6 억 위안으로 YoY+13.3%, 순이익 65.1 억 위안으로 YoY+15.8%.
	그린타운 차이나	3900	-8.0	
	Evergrande	3333	0.0	
섹터	종목명	티커	주간(%)	섹터 / 종목 이슈

제약	Fosun 의약	2196	-2.2	■ Fosun 의약, 상반기 매출액 44.74 억 위안으로 YoY+29.15%, 순이익 10.53 억 위안으로 YoY+50%. ■ 광저우 제약, 08/29 일자로 상호명을 광저우 백운산(Guangzhou Baiyunshan Pharma) 제약으로 변경.
	광저우 제약	0874	3.4	
	시노팜그룹	1099	-1.4	
금융	중국 공상은행	1398	-1.0	■ 중신은행, 상반기 순이익 203.9 억 위안으로 YoY+5.25%, 총자산은 3.4 조 위안으로 YoY+16.12%. 총자산 중 대출총액은 1.82 조 위안으로 YoY+9.72%, 고객예금총액은 2.6 조 위안으로 YoY+15.91%. ■ 농업은행, 상반기 순이익 924 억 위안으로 YoY+14.8%, 실적호조 원인: 이자마진과 수수료 수익 증가세. ■ 공상은행, 상반기 순이익 1385 억 위안으로 YoY+12.34%.
	중국 농업은행	1288	-0.9	
	중신은행	0998	-2.6	
IT	킹소프트	3888	8.3	■ 킹소프트(3888 HK), 상반기 매출액 9.53억 위안으로 YoY+55%, 순이익 3.41억 위안으로 YoY+71%, OP 마진 87%. ■ ZTE 통신, 올해 3분기 순이익 5억~6억 위안으로 YoY+130%~144% 예측. ■ 블랙베리 매각 결정, 레노버그룹이 블랙베리 인수가능 루머가 돌면서 28일 블랙베리 주가 2.7% 상승, 레노버 주가 1.76% 상승.
	레노버그룹	0992	1.4	
	ZTE 통신	0763	0.4	
통신서비스	차이나 모바일	0941	0.2	■ 제일재경보에 따르면 차이나모바일 4G 망 설비입찰 윤곽이 드러남. 그 중 ZTE 통신과 Huawei 가 각각 26%로 기타 통신장비업체를 포함할 경우 로컬기업이 67% 비중을 차지. ■ 중국 통신 3 사 상반기 총 매출액 6000 억 위안 초과, 순이익 785 억 위안. 통신사별 매출액은 차이나모바일 3031 억 위안으로 YoY+10.4%, 차이나유니콤 1486.1 억 위안으로 YoY+18.6%, 차이나텔레콤은 1575 억 위안으로 YoY+11.4%
	차이나 텔레콤	0728	-3.9	
	차이나 유니콤	0762	-0.2	
식품음료	위룬식품	1068	-2.6	■ Mengniu Dairy, 상반기 매출액 206.7 억 위안으로 YoY+1.3%, 순이익 7.5 억 위안으로 YoY+16.3%, OP 마진 26.7%. ■ 위룬식품, 상반기 매출액 103 억 HKD 로 YoY-17.8%, 순이익 1777 만 HKD 로 YoY-83.4%. ■ 칭다오 맥주 상반기 매출액 149.71 억 위안으로 YoY+11.68%, 순이익 13.95 억 위안으로 YoY+38.5%, OP 마진 47.92%.
	Mengniu Dairy	2319	6.0	
	칭다오 맥주	0168	-2.7	

Any Comment or News

√ 7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94.08억 달러로 YoY+24.13%, 28개월이래 최고수준 기록. 1월~7월 외국인직접투자는 713.92억 달러로 YoY+7.09%,

√ 외환관리국, <적격 국내 개인투자자(QDII) 해외증권투자 외환관리 규정>을 발표. 통화의 유입 유출 제한을 취소, QDII 투자 자금소스를 확대. 외국환 매입/매도 심의 취소, 신청서류 간소화 등 내용을 포함.

√ 7월 산업이익 4195.5억 위안으로 YoY+11.6%. 1월~7월 산업이익 3조 위안으로 YoY+11.1%.

√ 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여 의료서비스 및 관련산업 발전을 촉진, 대출자산 증권화를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투자전략팀

Strategist 김재호 CFA
(02)2009-7197
kimjh1@leading.co.kr

Quant Analyst 정정원
(02)2009-7068
jwjung@leading.co.kr

미국 담당 (R. A) : 박지미
(02)2009-7059
jmpark1@leading.co.kr

중국 담당 (R. A) : 최미나
(02)2009-7176
mncui@leading.co.kr

*©.2013**LeadingInvestment&SecuritiesCo**.Allrightsreserved*